

2 0 1 2

데 프 미 디 어

초 청 상 영 회

전.일본농아인연맹

창립 60주년

기념영화

꽃거리나무

두 연인들을 이어주는 영화 속 사랑과 슬픔의 기적!

하야세 켄타로 감독작품

주최·주관 _ 농인독립영상제작단 데프미디어 | 후원 _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중구지부, 대구광역시농아인협회

<http://cafe.daum.net/deafmedia>



재단법인 전일본농아연맹 창립60주년 기념영화 "굴거리나무"
"농인과 청인의 합작"

손과 손으로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언어

줄거리

1999년 도쿄의 서민 동네. 청각장애인 목공 게이치에게 어느 날 미완의 영화상영회와 영화제작모집 공고를 알리는 한 장의 안내문이 배달된다. 상영회의 영화는 바로 31년 전 게이치 자신이 미완으로 끝낸 청각장애인 운동 기록영화. 병마에 시달리고 그이지만, 30여년이 지나도록 변함없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알리기 위해 이 미완의 영화를 완성시키고자 다짐한다.



제작과정

청각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온 전.일본농아연맹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제작한 영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용 영상교재를 제작하는 하야세 켄타로가 극영화를 기획하고 각본을 작성했다. 또한 만화 「도토리의 집」 등에서 청각장애아의 고투를 그린 야마모토 오사무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으로 첫 감독에 도전하였다.

영화제작의 베테랑들이 결집하여 촬영하고, 야외촬영시에는 수화통역사가 동행하였다. 「스타트!」를 외칠 때에는 흰색 기를, 「컷!」에는 빨간색 기를 흔드는 등 여러 아이디어로 농인 감독과 청인 스태프 또는 캐스트와의 의사소통을 도모하면서 열정을 실현하였다. 또한 세대마다 다를 수 있는 수화표현에 관해서는 「일본수화연구소」가 담당하였고, 여러 전문가들과 선배들의 도움으로 촬영이 진행되었다.



감독 하야세 켄타로

6월 2일(토)

오후2시

안양동안여성회관 3층

서울지하철 4호선 범계역
1,8번 출구(도보 3분)

안내 : 이병헌 010-3519-9180

6월 9일(토)

오후2시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스크린 씨논
(대명동 구.계명문화대 돌계단건물6층)

대구지하철 1호선 명덕역
1번 출구(도보 10분)

안내 : 이영미 010-2541-9849

6월 16일(토)

오후2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지하철 2호선 센텀시
티역 4번출구(도보 5분)

안내 : 고현정 010 9476 3741

6월 23일(토)

오후2시

주안메인프라자 영화공간 7층

인천지하철 1호선 주안남
부역 8번 출구(도보 3분)

안내 : 이지연 010-5018-3712

6월 30일(토)

오후2시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서울지하철 3호선 약수역
5번출구(도보 3분)

안내 : 박재현 010-4818-6429